

**대한원적외선, 가정용 원적외선 사우나 'IS-110D'**

대중 사우나 · 찜질방 전문 시공업체인 대한원적외선이 가정에서 간단히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IS-110D'을 시판했다.

이 제품은 원적외선 히타를 이용해 저온으로 땀을 낼수 있어 고온사우나에 부담을 갖는 사람도 장시간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기존의 가정용 사우나는 전기히타를 이용해 사용하기까지 1시간정도의 예열시간과 높은 온도로 인해 코와 목이 마르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원적외선은 파장이 근적외선과 마이크로파의 중간 파장을 가진 빛으로 피부 속 약 4cm까지 침투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땀을 흘리게 하는 장점이 있다. 회사관계자는 “이 제품은 캐나다산 삼나무의 자연스러운 재질과 색상으로 만들어져 일반 가정집의 안방, 베란다 등에 설치해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토실업, 황토에 편백나무 첨가 '히노끼 흙침대'**

기능성 침대 전문제조회사 한토실업(대표 손경식)이 황토와 편백나무로 만든 '히노끼흙침대'를 출시했다.

이 침대는 주원료로 황토와 편백나무로 만들어져 숲속에 있는 듯한 산림욕 효과를 생성시켜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편백나무는 식물이 병원균에 저항하기 위해 방출 또는 분비하는 '피톤치드' 효과가 뛰어나 각종 곰팡이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준다. 또 황토는 노화현상의 원인인 과산화지질을 중화 및 희석시켜 카탈라제 효소 등 종기, 기타 부패한 세포를 파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황토와 나무로 만든 집에 살아왔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며 “현재 출시된 여러 온열침대의

찜질만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충족시킬 수 없어 히노끼 흙침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휴대폰에 매다는 미니 화장품 인기**

출근길 지하철에선 바쁘게 화장하는 여성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가방을 뒤적이며 화장품을 찾아내 흔들거리는 차량 안에서 바르고 짝고 올리고를 묘기처럼 해낸다. 이들을 위해 휴대폰 하나면 간단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는 이색 화장품이 나왔다. 미용소품 전문업체인 주주에이비씨(대표 이용호)는 휴대폰 충전기 연결 부분에 꽂아 쓸 수 있는 속눈썹 뷰러 '셀컬'을 내놨다. 곧바로 가열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 9.7g으로 초경량이어서 휴대하기가 편리한 데다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손 눈썹 보호 효과도 있다. 또 속눈썹을 올려주는 컬링 효과가 탁월하고 한 번 올리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지속성으로 휴대용 화장도구로 인기다. 휴대폰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미니 립글로스도 있다. 부르조아가 내놓은 모바일 미니 립글로스 '에페 3D'는 1.7ml 용량으로 감쪽한 크기에 실용성을 자랑한다. 안나수이 '미니 루즈'도 휴대폰 고리에 달아 사용할 수 있고, 안에 거울까지 내장돼 있어 이동하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600억 냄새시장, '하마'를 넘어라**

황사,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 등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중에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방향 및 탈취 효능을 저마다 자랑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방향 및 탈취제 제품의 안전성은 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성 검사를 마친 제품에 부여하는 KPS인증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향제 및 탈취제 산업의 시장규모는 550억 원에서 580억 원 수준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 20%가 방향제 및 탈취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 계적인 보급률 통계에

비취됐을 때 평균적인 시장 크기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개 회사는 옥시를 비롯한 한국존슨, 엘지생활건강, P&G, 나나물산, 애경, 헨켈 등이 있다.

이 중 옥시가 '냄새 먹는 하마'를 필두로 국내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한국존슨의 그레이드가 국내 시장의 20%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고 이밖에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비슷한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특징이 뿌리는 방향제 및 탈취제보다 놓고 쓸 수 있는 젤 타입을 선호 한다"며 "특히 방향제와 탈취제가 7 대 3 비율로 방향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탈취제 시장도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체들은 옥시를 비롯한 대기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뿌리는 타입과 놓고 쓰는 젤 타입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 중외제약은 최근 친환경 방향제 '중외 피톤케어 휘산기'를 출시했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는 피톤치드는 나무가 각종 해충과 병원, 박테리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성분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초음파 진동 모터를 이용해 피톤치드액을 미세입자로 공기 중에 뿌려 집안 세균을 억제한다. 중앙 씨앤씨는 진공청소기 전용 향균 방향제 '아로마 5080'을 출시했다. 아로마 5080은 청소기로 일반 먼지를 빨아들였을 때 방향제 알갱이를 집진실에서 먼지와 섞는 방식으로 향을 배출한다.

디자아로마는 음이온아로마 발생기인 '아로마워즈2000'을 내놨다. 음이온과 아로마를 단독·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1차적으로는 음이온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2차적으로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제공해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극대화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로마워즈2000은 화학향을 쓰지 않고 100% 천연 오일을 사용한 기능성 아로마테라피용 방향제다. 중앙씨앤씨와 디자아로마의 제품들은 중소기업청

추천상품으로 선정돼 브랜드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방향 및 탈취제는 천연 향 및 향기치료제 등의 경우 의약품이나 의약부외품으로, 향수 등은 화장품으로 간주돼 기술표준원의 KPS인증제도 밖에 있다.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정장현 연구관은 "공산품으로 규정된 방향제 및 탈취제는 자율안전확인 제도를 통해 KPS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험인정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제조사들은 이같은 군소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방향 및 탈취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대기업인 A사 관계자는 "큰 업체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KPS마크를 획득하고 있다"며 "군소 업체들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 안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 인토문화연구소, 황토 손 벽돌 등 친환경건축자재 화제

10여 년간 우리나라 전통의 황토 손 벽돌과 너와 등 친환경 건축 자재만을 생산, 친환경 주택 보급에 앞장서 온 업체가 있다. 화제의 기업은 여주군 여주읍 매통리에 위치한 황토 손 벽돌 공장인 인토문화연구소(대표 박영선). 공장부지만 무려 1만여평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지을 때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황토벽돌을 전통의 방식대로 손으로 직접 만든다. 그래서 그냥 황토벽돌이 아니라 황토 손 벽돌이라 부른다. 이 황토 손 벽돌은 여주에서 도자기용으로 쓰이는 천연의 청정 황토에다 무공해 유기농 벚짚을 사용해 만들며, 짚어낸 벽돌은 수개월간 자연 상태로 건조시킨다. 기계식 황토벽돌 보다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단열 · 보온 · 탈취 · 향균효과 등이 뛰어나고 내구성도 더 강하다.

친환경 주거문화 창조를 위한 인토문화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황토 손 벽돌 외에 순수 국산 굴참나무로 만든 '너와(지붕용)'와 국산 소나무를 이용한 서까래 및 자연구들도 만들어낸다. 본드와 시멘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 황토 몰탈과 황토 가습기도 선보이고 있다. 이 처럼 건강에 좋고 친환경적인 건축자재만을 생산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박영선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난판도 많았지만 '흙은 정직하다'는 신념으로 친환경 건축 자재만을 고집해 온 결과, 이 분야에선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업성을 떠나 사람과 자연이 호흡하는 주거문화 창조에 한몫하고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토 손 벽돌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박 대표는 "기계식 벽돌보다 원적외선이 90% 이상 많이 나오는 등 효능이 뛰어나고 내구성도 강해 나무골조와 황토벽돌만으로 2층 건물도 거뜰히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문화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결과, 황토벽돌 관련 특허를 2개나 갖고 있다. 또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직접 시공까지 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물론 전국 각지에 전원형 주택을 비롯해 많은 병원, 교회, 식당 등을 지었다.

**미래현무암**

미래현무암(대표 송주신)은 우수한 건축자재인 현무암을 선보였다. 열에 반발력이 있어서 화재시 부상을 입거나, 쉽게 깨질 수 있는 화강석과 달리 현무암은 열에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일정 온도의 고열에 천천히 녹아 안전의 측면에서도 최고의 건축자재이다. 현무암은 지하 1000km 이하 섭씨 1200~1400도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으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천연옥보다 더 높은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역사 유물이나 맷돌, 절구 등에 사용되었던 용도가 최근에는 건축 내장재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무암은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인 진드기,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시키고, 포름알데이드(새집증후군) VOC

절감과 화장실, 담배, 생활쓰레기, 애완동물 등 생활 악취 제거효과가 뛰어나며, 습도조절 기능으로 결로 현상을 예방해 준다. 또한, 체내의 중금속을 흡착 분해함으로써 혈액순환 개선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풍부한 산소량과 높은 수치의 원적외선 방사 음이온 방출로 성인병의 예방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알카리나 염에 대한 내성이 강해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다.

**에이치케이엠엔에스(주)..**

**車 루프 장착형 공기청정기 히트예감**

자동차 환경 기술 개발 전문 기업 에이치케이엠엔에스(주)(대표 지태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환경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토종기술을 남기기 위해 회사를 세웠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 활용기술을 기반으로 배기가스 정화기술, 차내 공기 환경 제어 기술, 디젤 매연 저감장치(DPF) 기술, 산업·생활용 청정용품 응용화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용 전력변환장치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주력제품은 2007년 4월 개발 완료한 자동차 루프장착형 공기청정기 '이넥스'. LED가 탑재된 이 제품은 차량 중앙의 룸램프 위치에 설치할 경우 공기정화와 조명기능을 한다. 업체 관계자는 "세단 등의 고급형 차량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공기청정기를 일반 RV나 SUV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고 제품 특징을 설명했다. '이넥스'는 먼지 제거기능만 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메인필터와 기능성필터의 2중 필터링 시스템으로 먼지와 악취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이 때문에 신차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은 음이온과 살균이온을 발생시켜 자동차 실내의 이온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더불어 차 실내의 오염도가 높아질 경우 이를 감지해 정화 정도를 높이는

자동센서기능도 갖췄다. 룸램프를 켜놓고 방치할 경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에 대비, 배터리 전압이 기준 값 이하로 내려가면 전원을 끄는 배터리 보호 기능도 있다.

산뜻한 향으로 탑승자의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아로마 기능도 눈에 띈다. 에이치케이엠엔에스(주)는 올해 DPF 제품의 환경부 인증, 내년 초 DPF 출시 등 단계적인 기업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지태환 대표는 “DPF의 성공적 론칭 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메이커사와 배기저감장치 공급을 위한 공동개발을 모색할 것이고, 이를 통해 환경 분야의 선도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올 더위엔 냉풍기 쓰시죠”

하이코(대표 이성수)는 공장 · 업소용 냉풍기인 ‘하이쿨’을 개발,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 하이쿨은 기화열을 이용해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냉각방식으로 만든 기화식 냉풍기. 각종 공장 및 모든 업소에서 실내에 발생한 열과 탁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해 냉풍기 효과를 높였다.

하이코는 더불어 사계절용 이동식 냉난방기와 제빙기를 사업품목에 추가, 앞으로 관련 전시회 및 행사에 매월 2회 이상 제품을 노출시킬 예정이다. 회사관계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추세에 비춰 볼 때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풍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신일산업(대표 송권영)도 3단계 풍속조절과 음이온 기능, 3차 원(3D) 입체 냉방 시스템을 갖춘 ‘SIF-2005RT’ 등 4개의 냉풍기 제품을 내놓고 마케팅,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동명플로우(대표자 김병돈)는 예티 바이오쿨 냉풍기 ‘DF-584’를 내놓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음이온 청정 냉풍기를 표방하며 얼음냉매(아이스팩)와 폭포낙하 냉풍방식을 채택,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냉풍기는 선풍기의 저렴함과 에어컨의 시원함을 갖춘 제품으로 팩을 지속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전락소모량이 에어컨의 25분의 1 수준이고 설치비가 없어 소비자들과 제조업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업계추정으로 국내 중기업체가 70~8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산요 등 외국 업체들이 나머지를 점유하고 있다. 과거 현대전자(현 하이닉스)가 냉풍기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냉풍기 수요가 많지 않고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진입이 어려웠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기업체들은 마케팅을 강화하고 제품을 잇 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섰다.

### 비엠아이..공기를 깨끗하게, 천연식물 탈취제

비엠아이(대표 김용오)는 천연식물 추출 탈취제, 포름알데히드 제거제, 바이오 비누 및 피부 관리용품 등 각종 생활 · 환경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탈취제품인 ‘홈 프레쉬 시스템’을 내놓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품은 새집증후군을 막아주는 포름알데히드 전문액상과 냄새 제거 및 항균기능이 있는 천연식물추출 액상, 천연 음이온을 방출하는 바이오 세라믹 음이온 칩, 오염된 실내공기를 지속적으로 항균탈취를 할 수 있는 프리취 에어로 구성돼 있다. 프리취 에어에 프리취 홈 액상을 물과 희석해 나노입자로 공기 중으로 분사시키고 음이온 칩은 다량의 음이온을 방출해 공기정화 및 살균 효과를 높인다. 살균 탈취효과 이외에 미세먼지 제거와 가습 기능도 가지고 있다. 김용오 대표는 “대부분의 탈취제품은 화학성분인 방향제의 일종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향기로 냄새를 막는 데 반해 ‘홈 프레쉬시스템’은 각종 악취를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항균 탈취 성분으로 근본적으로 없애준다”고 설명했다.

**오존 없앤 공기청정기 400억 수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 내 벤처기업인 블루앤(대표 이청호)은 최근 해외 위탁 영업망을 통해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음이온 공기청정기 10만대와 음이온 공기청정기 겸용 램프 200만개 등 총 310만개의 음이온 공기청정기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청호 대표는 “미국 유명 생활가전 유통회사인 블루스틴지 그룹과 1,297만달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일본 보그사 684만달러, 대만 모에모에사 312만달러 등 올들어 총 4,013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달 말부터 대덕 테크노밸리 자체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1년간 해당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단기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낸 비결은 음이온 생성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오존을 100% 차단한 ‘전계 제어’ 음이온 발생장치 덕분이다. 이온발생장치에 높은 전기에너지가 걸리면 배출되는 오존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2m거리 측정에서 평균 4만2,200여개(1cm³ 기준)의 음이온이 검출될 정도로 음이온이 멀리까지 방출됐다”며 “이는 음이온 방출 반경이 50cm~1m에 불과한 기존 제품보다 한 차원 앞선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음이온은 공기 중 오염물질과 결합하는 힘이 강해 공기정화 역할을 해준다. 또한 DNA 필터와 제올라이트필터를 채택해 새집증후군 물질과 바이러스, 황사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국내 처음으로 LB금속산화물촉매를 활용해 기존 제품보다 탈취력이 20배 강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웰빙’ 생활가전 쏟아진다**

생활가전 업체들이 웰빙 기능을 보강한 가전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지난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됐던 세빗 2008의 주제가기도 했던 ‘친환경 그린IT’가 생활가전 업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업체들은 웰빙, 헬스, 의료 등을 전략 키워드로 삼고,

이를 적용한 친환경 생활가전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가전에 집중하고 있는 필립스전자는 최근 일명 4세대 칫솔 ‘소닉케어 플렉스케어’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국내 칫솔시장 규모는 15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프리미엄 칫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0%인 300억원에 달한다. 필립스의 신제품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치아, 잇몸은 물론 미백 등 구강관리 가능한 웰빙 칫솔이다. 필립스 관계자는 “이 제품은 칫솔모로만 닦는 일반 전동칫솔과 달리 3만1000회의 움직임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방울로 세정 한다”고 말했다. 국내 중견기업 중에서는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가 웰빙가전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 시장을 대중화시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웅진케어스가 최근 출시한 자연 가슴 공기청정기 ‘AP-0807DH’는 일본 항균제품 기술협의회(SIAA) 인증을 받은 항균 수지를 사용해 99.9% 항균기능을 유지한다. 또 알레르기, 새집증후군, 헌 집 곰팡이, 황사 유해 먼지를 잡아주는 맞춤 필터 4종을 채용했다.

LG전자의 ‘스팀트롬 알리지 케어’ 드럼세탁기는 아이를 둔 가정에 유용한 웰빙기능을 갖춘 제품. 의류나 침구류 속 알레르기 원인물질인 집 먼지 진드기는 99.7%, 애완동물의 털, 꽃가루, 바퀴벌레의 배설물은 100% 제거해준다. 일반적인 세탁과정에서 없어지지 않는 알레르기 물질을 스팀을 이용해 분해하고 4단계 강력 헹굼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다. 생활가전업체 리홈의 윤희준 마케팅팀장은 “해마다 황사와 공기오염으로 봄철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살균 기능 및 먼지제거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기능성 커플룩 잘 어울려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올 더위에 대비한 숯·알로에·콜라겐·비타민 등이 함유된 기능성 속옷이나 시원하면서도 감각 있는 디자인의 모시파자마가 눈길을 끈다.

통풍이 잘 되고 전통적인 모시의 느낌과 문양을 살린 다양한 제품들로 선택 폭이 넓어졌다. 특히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커플 속옷들이 두드러진다. 커플룩이 낯선 부모님께 색다른 재미와 친밀감을 전할 수 있는 선물 품목으로 제격이다. 비비안은 한 폭의 수묵화를 옷에 그려 넣은 듯 고풍스런 느낌의 커플 모시 파자마를 선보였다. 반소매 상의와 무릎 길이 바지로 구성돼 잠옷이나 실내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트라이브랜즈(대표 김창린)는 부부 잠옷세트를 추천했다. 천연 소재인 숯, 마 등으로 가공해 만든 제품이라 탈취, 항균, 원적외선 방사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중외 피톤치드 선물세트 출시**

중외제약은 피톤치드 비누, 치약, 스프레이 등으로 구성된 헬스 케어 상품인 ‘중외 피톤치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외 피톤치드 선물세트는 기존 가격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3만원, 5만원 2종류가 출시됐다. 중외 피톤치드는 집안에서 아토피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인 집먼지 진드기와 포름알데히드(HCHO)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피톤치드 성분 중에서 항균력이 가장 우수한 편백나무향을 발산하기 때문에 집먼지진드기 등에 대한 뛰어난 살균효과를 나타내 아토피 진정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톤치드 비누는 인공방부제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순식물성 자연비누로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의 항균력으로 더욱 청결한 세안이 가능하다. 또 수분유지에 효과적인 글리세린이

함유돼 있어 탁월한 보습효과를 느낄 수 있다. 피톤치드 치약은 항균력이 강한 피톤치드 및 자일리톨 등이 함유돼 구취 제거,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피톤치드의 상쾌함이 양치 뒤에도 입안에 남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피톤치드 소취스프레이는 천연 피톤치드를 인체에 쾌적한 농도로 희석해 분사하는 제품으로 차안이나 집에서 사용하면 피톤치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운전자와 수험생의 스트레스 완화 및 집중력 제고에 효과적이다. 또 집 먼지진드기 스프레이는 집먼지진드기 기피 효과가 뛰어난 천연 피톤치드를 마이크로캡슐에 담아 장기간 발산, 간편하게 집 먼지진드기 생육 억제 및 기피 효과를 볼 수 있다. 아토피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한임상건강의학회 오성일 이사는 “천연 항균물질인 피톤치드는 아토피의 환경적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HCHO) 제거 및 집먼지 진드기 생육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톤케어 휘산기를 아토피 환자가 있는 집에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진화하는 공기청정기’**

웅진코웨이는 국내 최초로 한약재인 황금(黃芩)을 소재로 만든 필터를 장착한 ‘한방필터 공기청정기’(AP-1207BH)를 선보였다. 천연 마 소재를 활용한 유아용 공기청정기, 은행나무 추출물, 불나무 추출물 등이 함유된 맞춤형 필터 공기청정기에 이은 세 번째 천연 소재 제품이다. 황금은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있어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필터에 안성맞춤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황금 한방 항균 필터는 경희대 한의대와 산학협동으로 한 약재 선정과 염증 및 알레르기 실험, 안전성 조사 등 1년이 넘는 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한방필터 공기청정기는 기능 뿐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됐다. 회사 측은 “협탁형으로 거실에 놓여 있으면 언뜻 봐선 공기청정기인지 협탁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지난 1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에어비타(대표 이길준)의 초소형 공기청정기 ‘에어비타’는 음이온이 방출되는 제품이다. 전구 크기만 한 이 공기청정기는 전자 모기향처럼 콘센트에 꽂아놓으면 초당 200만개의 음이온을 발생시켜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필터형에 비해 약취나 담배냄새를 제거하는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10만원 이하로 저렴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에어비타는 특수고분자 진공 코팅 처리해 물에 넣어 세척할 수도 있다. ‘물에 씻는 전자제품’인 셈이다. 이 같은 뛰어난 안전성으로 제품 선정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 최대 홈쇼핑회사인 독일QVC에서 올해 주력 판매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음이온만 발생하게 하거나 음이온과 오존을 동시에 나오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대우일렉, ‘자연’ 컨셉 에어컨으로 유럽 공략**

대우일렉(대표 이승창)이 유럽 최대 에어컨 전시회에 자연친화적 디자인과 동양적 컨셉을 강조한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유럽 에어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우일렉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어컨 전문 전시회엔 ‘MCE(Mostra Convegno Expocomfort)2008’에 참가, 인테리어 멀티 에어컨, 듀얼 클러 에어컨, 초절전 에어컨 등 신제품을 출품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꽃수술 패턴, 만개한 꽃, 훑날리는 갈대잎 문양 등 자연 친화적인 감성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아울러 한글 이미지를 도형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고구려의 연화 문양을 디자인한 제품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 계획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프리미엄 웰빙 에어컨’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기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2%까지 제거할 수 있는 ‘안티 바이러스’ 제품과

0.3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미세 먼지까지 제거하고 음이온까지 발생시키는 제품 등을 선보인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우일렉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2개의 독립 냉각팬과 열교환기를 채용한 ‘듀얼 클러’ 제품,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 전기소모를 줄인 멀티 에어컨, 설치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제품 등 45개 신제품을 출품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현재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등 유럽 주요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유럽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리홈, 콩나물밥 기능 7인용 압력밥솥 출시**

생활가전 리홈(대표 이대희)이 콩나물밥이 가능한 9겹 황금 내솥 기술을 장착한 IH(통가열) 7인용 전기압력밥솥 ‘리홈 블랙&실버 나인 클래식 Ⅲ’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블랙&실버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과 동, 그리고 보온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를 압착한 3.2mm 두께의 9겹 판재 황금 내솥이다. 특히 최초로 웰빙메뉴인 콩나물밥을 특화해 갈슘, 비타민 및 단백질 등이 풍부한 아삭한 콩나물밥까지 가능하다. 자동스팀세척기능, 헤드락 잠금장치와 14중 안전장치, 미러형 그래픽 LED창 및 터치센서, 예약보온기능, 영양밥, 가마현미 및 슬로우쿡 등 300단계 이상의 밥맛조절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장착했다. 또 티타늄 황금 내솥을 채용해 굽힘과 벗겨짐을 최소화하고 티파이온 코팅을 내솥에 적용, 풍부한 미네랄과 원적외선,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희준 리홈 마케팅 팀장은 “신제품의 장기인 콩나물밥 기능은 갈슘, 비타민,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해 백미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반신욕기

월딘(대표 최승용)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반신욕기 '명작' 시리즈 제품을 출시했다. 명작 시리즈는 제품 내부에 원적외선이 나오는 6면 발열체를 사용했다. 6면에서 열과 함께 원적외선이 나와 반신욕을 하는 느낌은 물을 이용할 때와 비슷하지만 효과는 더 좋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반신욕을 하기 위해 더운 물을 받고 뒤통리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효도 선물로 좋다. 거실이나 방안에 두고 반신욕을 즐기면서 TV를 보거나 독서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원을 켜두고 7분 정도 후에 들어가 앉으면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들어간 듯하다

### 새집증후군 예방 건축마감재 개발

포름알데히드, 라돈방사선 등 실내오염 물질을 제거해 새집증후군을 예방해 주는 건축마감재가 개발돼 관심을 끈다. 미국의 대표적 한상인 임계순 나노디벨롭먼트 회장이 투자한 벤처기업 (주)비엔씨는 최근 친환경 기능성 건축마감재 '나노실'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나노실은 황토에서 추출한 천연 무기광물에 은이온을 치환해 만든 제품으로 특허를 획득했다. 각종 유해가스와 세균 등 미생물, 해충 제거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발암물질인 라돈방사선을 52%까지 차단해 준다. 아울러 보온·보냉, 음이온 방출, 원적외선 방사 효과 등도 갖추고 있다. 일반 페인트처럼 콘크리트 시멘트벽에 바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비엔씨 측은 현재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납품 계약을 추진 중이며 미국 최대 가정용 전자재 유통체인인 홈디포, 일본의 유명 유통기업인 이온 등과도 계약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제품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품을 개발한 벤처기업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나 마케팅력이 부족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헬스드림' 베개 높이 조절해 코골이 예방

의료기기 제조업체 골드밀(대표 최상화)은 기능성 베개 '헬스드림(Health Dream)'을 출시했다. 헬스드림은 에어백이 내장돼 개개인 체형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베개로 바른 잠자리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몸에 맞지 않는 베개로 자는 자세가 엉망이라면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 체형 변화 가능성도 있다. 이에 헬스드림은 올바른 잠자리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것. 헬스드림은 인체 피부와 일체감을 주는 저탄성·고밀도 소재 메모리폼에 경추와 혈이 지나가는 곳에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되는 세라믹을 장착해 혈액 순환과 근육 피로 해소를 돕도록 했다. 또 베개 내부 에어백은 에어펌프를 통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목 디스크와 코골이 예방에 도움을 준다. 베개 외피는 초극세사 원단으로 실과 실 사이 간격이 100분의 2mm밖에 되지 않아 집먼지 진드기가 살아남을 수 없도록 촘촘하게 구성됐다. "바로 누웠을 때 경추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목뼈와 등뼈를 일직선으로 유지해 목 주위 근육을 바로잡아주는 제품"이라고 회사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 바로스타, 고기 굽는 불판 핸들 돌려 교체

핸들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고기 굽는 불판을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바로컴(대표 오상선)은 핸들만 돌리면 자동으로 불판을 갈아주는 야외용 그릴 '바로스타'를 출시했다. 불판은 지름 5mm, 길이 34cm짜리 스테인리스 봉 33개로 이뤄져 있다. 불판이 타거나 눌러붙어 교체해야 할 때는 불판 옆에 부착된 작은 핸들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따로 보관되어 있던 봉들이 굴러 나와 새로운 불판을 이루게 된다. 이미 사용된 불판은 자동적으로 레일을 따라 250개봉이 보관돼 있는 수납함으로 들어간다.

제품에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간편하고 10kg 정도 무게로 차 트렁크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만들어졌다. 음식점용으로 개발된 로스터는 자체 개발한 하향식 연소시스템과 세라믹 봉으로 항균, 탈취, 오염물질 분해 기능 등을 갖췄다.

**황토쌀독, 통풍기능 활용 신선도 유지**

황토는 살아 숨쉬는 흙이라고 불리며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스펀지 같은 구멍 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돼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해 다른 물체의 분자 활동을 자극한다. 또한 황토 한 스푼에는 2억 마리 미생물이 살고 있고 노화 원인인 활성산소, 과산화지질을 환원시키고 분해해 해독하는 인체에 유익한 생리 활성 물질인 카라타제라는 활성효소가 가득 들어 있다. 동양기업(대표 이영주)은 이런 기능이 있는 황토를 사용해 통풍효과가 뛰어나고 각종 곡식을 장기간 저장해도 신선도가 유지되는 로하스 시골집 황토쌀독을 개발했다. 순수 황토를 초벌구이 하여 잡곡과 쌀의 변질, 변색을 억제하며 쌀 성분이 그대로 보존돼 최고 밥맛을 유지해 준다. 쌀독 입구에 보호캡이 장착돼 있어 뚜껑이 깨지거나 흙이 묻어나지 않으며 보호캡이 있어 뚜껑을 닫을 때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

**쾌적한 실내 공기 숲으로 잡자...**

우리나라에 웰빙 열풍과 함께 친환경제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진정한 웰빙은 “비싼 소비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 먹을거리, 입을거리 등이 건강한 것. 사람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똑똑한 소비자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참숯 제품을 로하스홈쇼핑에서 출시하였다. 질 좋은 국내산 참숯과 대 숯만으로 원적외선 방사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온도에서 구워내는 수용성 함침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로하스홈쇼핑의 참숯 제품은 강력한 탈취 성능으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천연 숲으로 제작하여 습도 조절 효능이 뛰어나다. 또한 항균 ·

항곰팡이 작용이 우수하여 싱크 등의 고급 모피, 천연 가죽 등 고급 의류 보관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로하스홈쇼핑의 숲 침가 제품은 베개커버와 침대 시트, 옷커버와 야채 과일을 보관할 수 있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비 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참숯 베개커버와 침대 시트는 피부가 예민한 아이와 여성, 잠자리에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수험생과 직장인이 숙면을 통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 참숯 기능성 옷커버는 냄새 나는 옷을 하룻밤 걸어두고 아침이면 숲으로 정화된 옷을 입으실 수 있다. 회식 등으로 냄새가 베인 옷이나 고복, 제복, 양복 등 매일 입어야 하는 옷에 효과적이면서 화학 성분으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류의 손상 걱정이 없는 제품이다.

**다기능 테라피, 자연 소리·향기에 음이온까지**

소리와 빛, 향기, 음이온을 모두 동원해서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웰빙의료가 개발됐다. 음이온스탠드와 공기청정기 등 웰빙가전 전문기업 숲엔들(대표 김석진)은 스트레스 해소 및 명상효과에 뛰어난 다기능 테라피 제품(모델명 LTK-2000)을 출시했다. ‘소리와 빛, 향기, 음이온을 혼합해서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소리 테라피는 빗소리, 폭포수 소리, 나뭇가지에 바람 스치는 소리 등 24종의 특수 음향으로 백색소음을 발생시켜 수험생의 집중력 향상,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 태양광 중 우울증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470nm 파장 빛을 발산해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주원인인 멜라토닌 호르몬을 파괴하고 활동호르몬인 세로토닌 호르몬을 생성시켜 준다. 계절성 감성 우울증(SAD) 증상을 완화하도록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가 높은 파란색 LED 기판을 내장했다. 또 라벤더, 로즈메리, 재스민 등 천연향을 이용한 아로마테라피 기능과 최대 100만개 이상 음이온이 함께 방출돼 주변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티켓플러스, 칫솔·치약·물컵 하나로**

코리아 에네르연구소(대표 강운범)가 칫솔 치약 물컵을 하나로 만든 기능성 휴대용 칫솔세트 '에티켓플러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칫솔 안에 치약 통을 넣고 이를 다시 물 컵 겸용 외장용기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크기가 작은 게 특징이다. 핸드백이나 필통에 넣을 수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며 기차나 비행기 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치약은 리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한 번 채우면 한 달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티켓 플러스 스티슬립 칫솔모는 치석과 플라크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최고급 항균 슬립모 칫솔이며 99.9% 항균력이 입증된 항균 슬립 칫솔모를 사용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칫솔 세균 번식을 막아준다. 또 부드러운 항균 슬립 모는 양치시 잇몸 보호는 물론 불쾌감을 없애주며 치아 틈새까지 깨끗하게 닦아준다. 강운범 대표는 "학생은 필통에, 일반인과 여행객은 포켓에, 여성은 핸드백에 넣어 다니면 언제나 편리하게 양치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 방법은 치약통 용기 양쪽 캡을 돌려 열고 치약을 리필하고 치약 내장통 캡을 열어 치약을 적당량 문힌 뒤 손잡이를 뒤집으면 컵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칫솔을 깨끗이 행구고 물기를 털어낸 후 뚜껑을 닫으면 된다. 이 제품은 국내특허와 국제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미국 뉴질랜드 등 10여 개국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3만여 개를 수출했다

**전통 구들방 효과 돌 뜸이면 해결**

구들장을 깬 구들방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다. 열심히 일하면 마디마디에 기(氣)와 혈(血)이 정체되어 냉소부위가 발생한다. 그 때마다 냉소부위를 풀어주지 않으면 쭈시고 통증을 유발하는 병소부위로 발전하게 된다. 불로 구운 돌 위에 계란을 얹어 놓으면 노른자위부터 익듯이 따뜻한 구들방에 누워 자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생긴 냉소부위 중심부로 원적외선이 침투해 건강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암세포는 열에

매우 약하다는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는 기혈 순환이 왕성해 항상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사람에겐 암세포가 번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힘들게 살아왔지만, 구들방 덕분에 요즘처럼 암환자가 많지 않았고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구들방은 보일러를 깬 현대 온돌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체에 유익한 생활 문화였던 셈이다. (주)생명사랑(대표 송성진)은 구들방에서 누워 자는 효과를 편리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돌 뜸 제품을 고안하게 됐다. 뜸(灸)이란 고열을 이용해 막힌 경혈을 뚫어 기혈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동양의학 치료법의 근간이다. 뜸은 쑥을 태워서도 뜨고, 된장이나 겨자로도 뜸 수 있는데, 가열된 돌(불돌)로 뜨는 것을 돌 뜸이라 한다. 돌 뜸을 단전과 배꼽에 하나, 허리부위에 또 하나를 동시에 대고 뜸을 뜨면 구들방에 누워 잘 때와 같은 기혈 순환이 일어난다. 돌 뜸 전용복대를 활용하면 휴식 시간은 물론이고 사무 시간에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주)생명사랑은 사람 몸에 대는 제품은 100%자연재료, 친환경 재료를 써야 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 최초로 질석 황토 돌(특허출원)을 개발해 신체에 부착함으로써 인체에 좋은 열과 기를 제공토록 했다. 또 작은 부속 하나라도 납 성분이 없는 것을 사용했다. 수명이 다해 제품을 해체했을 때 있는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지름 18cm 높이가 6cm의 작은 돌 뜸이지만 구들방이 조상들의 몸을 강인한 체질로 만든 것처럼 현대인의 필수품이 될 만하다. 요컨대 돌 뜸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특히 한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제품이다. 쭈시거나 피곤하면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지고 싶어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동네마다 찜질방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찜질방까지 갈 필요가 없다. 돌 뜸 하나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구들방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닥 마감재, 맥반석으로 유독성분 차단**

바닥재 전문 제조업체인 남오바이오베스톤(대표 장웅)은 기존 바닥 마감재로는 사용하지 못했던 맥반석을 활용한 인조 대리석 질감이 나는 바닥 마감재를 개발했다. 회사 측은 신축 건물의 새집증후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아토피 등에 대비해 친환경 성능이 우수한 바닥마감재라고 밝혔다. 인조 대리석 질감을 갖는 바닥마감재는 황토분과 맥반석에 의해 콘크리트의 유독성분을 순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공극을 최소화해 내구성 및 접착 강도를 향상시키되 접착용 수지의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시공 기간 및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원적외선 기능은 물론 콘크리트의 세 배 이상의 초강력 압축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것이다. 방수 효과는 물론이고 섭씨 평균 ±2~3도의 보냉 보온 기능이 있어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고급스런 외장, 유지관리가 간편한 특성이 있으며 시공 시에도 콘크리트 바탕 몰탈 미장이 불필요해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학교 교실 및 복도, 조리실, 일반 건물, 병원, 농수산물 저장고, 화장실, 주차장, 옥상, 자전거 길 등 바닥재 이용에 제한이 없다.

**(주)아르카바이오·**

**독자 기술로 탈취제 시장 '도전장'**

“현대사회의 문명화와 첨단화는 삶의 안락함과 동시에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염된 공기, 새 건축물 등에서 접하는 유해물질 등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다.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제품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활환경 전문기업 (주)아르카바이오의 김남형 대표가 당찬 포부를 전했다. 그는 수많은 외국 수입제품들에 점령당하는 국내 탈취제 시장의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지난해 2월 순수 국산제품 개발을

목표로 회사를 설립했다. (주)아르카바이오의 사업 분야는 실내공기 질 관리부문과 생활환경 관리부문, 유해물질 첨가 제거부문의 세 가지로 나뉜다. 실내공기 질 관리부문에서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기술과 자동차 냄새 제거기술을 개발해 자체 탈취제 브랜드인 '風100'을 런칭했다. 생활환경 관리부문에서는 가구전용 탈취제와 병원·장애인시설·애완동물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 제거제 등을 개발 중이며, 오는 10월께 항균 및 탈취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물질 첨가 제거 부문에서는 우레탄·고무류·합판가구·페인트 등에 첨가되는 유해물질 제거가 목적이며, 이 기술 역시 한창 개발 중이다. (주)아르카바이오는 설립 1년을 갓 넘은 신생기업임에도 탈취제 제조방법 및 개발기술과 관련해 총 6건의 국내특허를 획득했고, 지난해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 보육사업(TBI)의 일환으로 고기능성 탈취제 개발에 성공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다. 대표 탈취제품인 '風100'은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신물질로 만들어 졌으며, 강력한 탈취력으로 공기 중의 악취와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특히 냄새의 원인 물질에 유착해 분자와 결합하고 물질 표면에 피막을 형성, 코팅함으로써 이를 불활성화시키는 원리를 통해 유해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 강점이다. 이는 일시적인 냄새 제거나 탈취제를 뿌리는 대상의 표면에서만 차단 작용을 하는 타사 제품과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風100'은 99%의 우수한 생분해성과 섭씨 180도에서도 색상 및 탈취 기능의 변화가 없는 열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파이렉스, 원적외선 뚝배기 '클레이팻' 출시**

세계적인 주방용품 제조회사 월드키친의 토탈 키친웨어 브랜드 파이렉스는 천연 세라믹재질로 제작된 파스텔 컬러의 산뜻함이 느껴지는 원적외선

독배기 제품 '클레이팻'을 출시했다. 파이렉스 '클레이팻'은 일본 최고급 세라믹 제품만을 생산하는 오키카치 지역에서 전 공정이 수공으로 제작되어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이다. 무광의 고급스러운 광택과 파스텔 컬러를 적용하는 고난이도 공정으로 만들어져 기존 독배기 제품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트렌디한 색감의 외형적인 특징과 더불어 원적외선 방사 효과도 갖추고 있어, 요리시 저온에서도 재료의 영양소 파괴가 적으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강한 요리가 가능하게 도와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천연 무공해 세라믹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면서도 위생적이며, 전자레인지나 오븐, 식기세척기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독배기 제품에서 빠질 수 없는 뛰어난 열 보존성도 보유하고 있어 조리된 음식을 테이블 위에서도 따뜻하고 맛깔나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감각적인 색감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세라믹웨어 제품들과 동일한 네 가지 색상(체리핑크, 커스터드 옐로우, 아보카도 그린, 모카 브라운)으로 출시되어 기존의 세라믹웨어와 함께 세팅하면 컬러풀하면서도 특별한 테이블을 연출할 수 있다. 파이렉스 '클레이팻'은 가스레인지에서부터, 전자레인지, 오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리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일상적인 음식을 비롯하여 일식의 나베와 샤브샤브, 이태리의 리조또와 파스타 등 각종 음식 요리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비엔씨 '항균 탈취 마감재 나노실'**

(주)비엔씨는 소비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천연소재 및 은나노 기술을 이용한 항균 탈취마감재 '나노실'을 개발한 업체이다. 2005년 4월 21일 창업한 비엔씨는 같은 해 8월 나노실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 및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2006년 4월 ISO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에는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또한 포항공과대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 개발회사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출의 급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나노실은 주거환경공간의 건축물에 맞게 개발돼 유해균, 유해가스에 의한 새집증후군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고 쾌적한 주거를 만들어주는 친환경 건축 마감재이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고품질의 마감재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신축건물의 시멘트, 콘크리트의 중금속제거와 접착제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성분을 제거하는 새집증후군방지 제품인 나노실-P가 있으며, 사무실 등의 준 주거 공간용 항균 탈취 제품인 나노실-I, 병원내 2차 감염 방지 및 냄새제거를 위한 나노실-M, 산업현장용으로 운전실이나 락커룸 등에 사용되는 나노실-F와 유치원이나 학교시설용으로 개발된 나노실-S가 있다.

**피죤, 업그레이드 '액츠 데오 후레쉬' 출시**

액츠에 천연 베이킹 소다와 식품첨가물인 텍스트린 첨가돼 습기가 많은 여름철 실내 건조시 빨래에서 나는 냄새를 강력 탈취하는 업그레이드 제품이 나왔다.

피죤은 기존의 천연식물 성분 함유 액츠에 천연 베이킹소다와 식품 첨가물인 텍스트린을 새롭게 첨가해 이중탈취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한 고성능 프리미엄 세탁세제 '액츠 데오후레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액츠 데오후레쉬는 자몽, 유자, 유칼립투스 등 천연 식물 성분과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기존 액츠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베이킹 소다와 텍스트린 성분을 새롭게 첨가해 습기가 많은 여름철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 날씨에 세탁물을 실내에서 건조할 때 발생하는 퀴퀴한 냄새를 강력하게 탈취하도록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 천연 향균제품 두손 덴탈케어 '치이'

각종 향균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두손 덴탈케어(대표 이한수)가 출시한 치약 '치이'는 소나무, 장미, 코르바 등의 식물 증류과정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이 주성분이다. 경희대 연구팀의 연구결과, 86%의 세균감소효과를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향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전염병 등 악화된 생활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손 덴탈케어는 지난달 분무형 향균제품 하이제닉스프리즈를 출시했다. 향균력이 뛰어난 오일을 고농축 미네랄워터에 분산시켜 제조된 분무형 제품으로 얼굴이나 신체 주변 등 공간에 관계없이 분무할 수 있어 개인 위생관리에 효과적이다. 이 제품의 개발자인 치과 의사 김종철 박사는 "하이제닉스프리즈는 가장 향균력이 뛰어난 에센셜 오일을 조합해 만든 치이 에센셜 오일이 함유돼 있다"며 "실험결과 피부감염 등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MRSA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국제약품 "발 냄새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은 발냄새 제거제 "FS-ZERO" 신제품을 출시했다. 여름철, 냄새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계절이다. 겨드랑이, 목, 머리, 입, 발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 땀 냄새 등 악취를 없애주는 "테오도란트"의 경우 2008년도 시장규모는 약 5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테오도란트"(겨드랑이 냄새 제거 제품)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제품이 여름철을 맞이하여 출시되고 있다. 국제약품이 이번에

출시하는 "FS-ZERO"의 경우 발에서 발생하는 땀의 분비를 억제하여 냄새의 원인균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액체 상태의 용액(Water Powder)을 Roll-on Type의 용기의 볼을 이용하여 발에 골고루 발라주면 1~2분 후 건조되어, 발을 건조한 뽕뽕뽕한 상태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 발 냄새 원인균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허브의 일종으로 강력한 향균력을 지니고 있는 살균제인 레몬그래스오일은 발 냄새를 발생시키는 균을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FS-ZERO"는 Roll-on Type의 용기를 사용하여 발을 깨끗이 세척한 후 용기에 있는 볼을 이용하여 발에 맞사지 하듯이 펴 발라 주기만 하면 된다.

### 루펜리, 日업체와 활성탄 필터 공동 기술개발

음식물처리기 전문기업 (주)루펜리(대표 이희자)는 일본 화학 그룹인 쿠라레이와 활성탄 필터의 공동 기술개발 제휴를 했다고 밝혔다. 쿠라레이는 전자, 화학, 환경 등 산업용 원료와 기능성 신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90%에 달하는 활성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5조 원 가량에 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화학그룹이라고 루펜리는 전했다. 루펜리는 공기순환 온풍건조 방식과 함께 음식물 처리기에 활성탄을 이용해 악취를 없애는 방식에 관한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자사의 악취제거 기술력과, 독보적인 활성탄 기술력을 보유한 쿠라레이의 노하우가 합쳐져 음식물처리기 '루펜'의 탈취 성능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루펜리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기는 까다로운 필터 기술이 요구되며 이것의 제품 품질을 좌우 한다"고 말하고 "이번 제휴로 필터 성능을 더욱 강화시켜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일본에도 우리 회사 제품이 들어가 호응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루펜리 '리빙엔' 바지 다리미 출시**

루펜리의 생활가전 전문기업 리빙엔(대표 이희자)은 신개념의 바지 다리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지 다리미는 물방울 가슴기에 이은 리빙엔의 두번째 야심작으로 기존 다리미와는 차별화됐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이 걸어만 두면 알아서 다리주는 똑똑한 기능을 갖췄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이미 인기를 끌어난 제품으로 기존 고가의 수입제품 판매점이나 특급 호텔에서만 볼 수 있던 바지 다리미가 국내 생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력한 탈취와 제습 기능을 갖췄고 앞뒷개가 유리로 만들어져 언제든 지 옷 상태를 볼 수 있어 주름이 잘못 잡혀질 우려도 해소했다. 자동 꺼짐 안전장치를 부착해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준다.

**최고의 친환경 천연 기능성 페인트**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인증 받은 제품들은 일반제품보다 가격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지만 제품의 질이 과연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제품인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 친환경 제품인지 인체에 좋은 제품이 친환경 제품인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요즘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친환경 페인트나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페인트나 친환경 제품들의 등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거에는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건물 및 시설물에도 사용 기준을 마련해 건설사나 시공사들이 시공 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쓰게 되면 좀 더 자연친화적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인증제도에서 등급에 대한 법적 기준치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제품의 등급을 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은 대기업 제품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 또한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천연기능성페인트 시장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은 (주)환경크린(대표 조현창)은 천연광물(스코리아)을 이용한 친환경천연 기능성 페인트를 개발해 주목 받고 있다. 조현창대표는 "이제품은 유기물 및 용제가 최소로 포함되어 포름알데히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으면서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고 한다. 또한 스코리아, 옥, 규조토 등과 같은 기능성 천연소재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기능성 내부마감재로 원적외선 방사, 음이온 방출, 탈취기능, 항균 및 항곰팡이의 부가적인 기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번 시공하고 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천연광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색상도 자연색에 가까운 색을 표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입제품에 비해 효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 이 회사의 친환경천연 기능성 페인트의 활용범위는 아파트 및 교육시설, 병원, 호텔, 산업시설 내 모든 생활공간에서 사용가능 할 뿐 아니라 우수한 품질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대표는 "국내 친환경천연 기능성 페인트 시장 선점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으며 자체 전시실과 디자인팀을 구축해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했다.